

산업화의 명암과 성적 욕망의 서사

- 1970년대 '창녀문학'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의 두 가지 양상 -

이 정 옥*

차 례

- | | |
|------------------------------------|-------------------------|
| 1. 문제 제기 | 3. 여성의 성과 욕체에 대한 감상적 탐닉 |
| 2. 남근(phallus)적 도색과 여성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 | 4. 맺음말 |

1. 문제 제기

1970년대 문학의 일면에는 이른바 '호스텔스문학'이나 '창녀문학' 또는 '상업주의적 대중문학'이라 일컫는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을 비롯한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 『미스양의 모험』, 조혜일의 『겨울 여자』 등 일련의 소설이 있다. '호스텔스문학'이나 '창녀문학'이라는 호칭이 여자 주인공들의 직업적 특성을 일컫는 것이라면, '상업주의적 대중문학'이라는 호칭은 대부분 신문연재 소설로서 대중 독자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러한 인기에 편승하여 영화로 상영됨에 따라 더욱더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명칭의 이면에는 당대 사회문제에 대한 리얼리즘적 접근을 시

* 서강대학교 강사

도한 본격소설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이 소설들을 ‘팔자가 드센 여자’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등 선정적인 소재를 선택하였다거나 윤리적인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상업적 성공만을 염두에 두었다는 식으로 작가들의 양심을 비판하는 시각이 담겨있다.¹⁾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게 대두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개혁을 중요한 문학적 사명감으로 삼는 참여문학이 문단을 휩쓸었던 당대 문단적 풍토도 크게 한 몫 한다.

그러나 이 일련의 소설에서 창녀나 호스텔스에는 당대 사회에 의해 조건지어지는 개인의 특성이 포착되어 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 세계에서 개인이란 사회적 요소에 의해 비춰지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소설 세계 내에서 개인은 사회적 요소의 거울일 가능성이 높다. 당대 문학에서 호스텔스나 창녀가 대거 등장했다는 점은 당대 사회현실이 성을 상품화하는 여성들을 양산하였던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 문제와 성의 상품화 등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성담론이 활성화되었던 당대 사회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소설들이 성을 다루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또한 ‘호스텔스문학’이나 ‘창녀문학’ 또는 ‘상업적 대중문학’으로 보는 시각에는 이들 소설에 반영된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한 고찰이 배제되어 있다. 섹슈얼리티란 용어는 성적 욕망은 물론 성적 정체성, 성적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과 관련된 감정과 제반 관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인의 성적 욕망이나 성 정체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본능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인 구성물이다. 그러므로 성은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한 개인의 신체와 자기 정체성, 그리고 사회규범이 일차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된다. 오늘날 성적 욕망의 발현 양상이나 섹슈얼리티의 전개 양상은 사회적 제도와 관련되어 다양한 수준의 권력과 지배의 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대 사회의 준거 체계가 된다. 섹슈얼리티를 근대 문화의 근본적인 범주로 설정하는 푸코에 따르면, 개인의 내밀한 성적 욕망과 이와 관련된 제반 사회 심리적인 조건을 드러내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찰은 근대적 주체를 탐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²⁾

1) 조남현, 『동속소설은 왜지가 쓴다?』, 『뿌리 깊은 나무』, 1979. 10. 84면.

1970년대는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역동적으로 진행된 시기이다. 1960년대이래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은 빠른 시간 내에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성장의 이면에 사회적 불평등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 도시 농촌간의 불균형 등을 숨김없이 노출시켰다. 즉 개인적으로는 도시적인 삶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가치관의 혼란과 소외와 좌절이라는 내적인 상처를 체험해야 했고, 사회적으로는 전통과 공동체의 붕괴, 물질주의적 생활 방식, 불평등과 부의 편재를 초래하였다. 1970년대의 문학에서 유난히 노동자, 도시빈민, 호스텔스, 창녀 등의 삶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도 산업화와 도시화의 이면에 숨겨진 소외된 계층의 문제나 경제성장의 부산물인 물질지상주의의 문제를 드러내려는 문학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³⁾ 이들의 뒤뜰린 삶은 곧 노동력의 착취와 정치적 억압 등을 엄폐하고 경제성장 제일주의만을 강조하는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의 인간 존재론적 왜곡을 드러내준다.

그러나 도시 빈민이나 노동자들과 달리 농촌 출신 여성의 전락과정에는 바로 1970년대 산업화의 왜곡된 구조에 제물로 희생된 여성의 성과 육체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1970년대 여성의 성과 육체는 당대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적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낸 성 정치의 단면을 드러내 보인다. 1970년대에 들어 창녀나 호스텔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것은 인구의 도시 집중화라는 사회적인 현상 외에, 1960년대까지 '피규제 상태'에 있던 성과 매춘을 무역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한 외화벌이라는 명목 아래 개방하였던 산업화 정책의 명암이 자리하고 있다.⁴⁾ 또한 군사독재정권의 정치적 욕구를 막강한 물리력으로 억압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호도하기 위하여 성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향락문화를 권장하는 정치적 유희정책의 명암이 자리하고 있다.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상품으로 만들었던 당대에 여성의 성과 육체는 외화벌이의 방편이 되기도 하고,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1970년대 향락산업에 종사하는 창녀나 호스텔스

2) 미셸 푸코, 『성의 역사』1권, 나남, 1990. 35-67면.

3)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1995. 225면.

4)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115면.

여성의 성은 농촌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급격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어두운 측면을 통합하기 위해 이용당하였던 당의정⁵⁾에 해당한다. 또한 그녀들의 성과 욕체는 외화벌이에 이용됨으로써 국가 발전 논리의 희생물이었고, 동시에 산업화의 역군으로 살아가는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순화하기 위한 배설구의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의 '창녀문학'이나 '호스레스문학'은 이러한 여성들의 체험을 담아내고 있다. 소설이 곧 현실로 환원될 수 없다 하더라도 소설이 표출한 현실 속에는 당대 사회의 삶의 방식은 물론 개인들의 성적 욕망과 섹슈얼리티가 작동되는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련의 소설을 통하여 1970년대의 섹슈얼리티를 그려내는 작가들의 방식과 성담론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소설 속의 현실과 당대 사회 현실과의 밀접한 관련성의 그물망 속에서 근대화 과정을 살아가는 당대 개인들의 섹슈얼리티는 물론 개인의 삶에 미친 성적 자장력을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대 사회로의 이행기에 해당하는 1970년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젠더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던 섹슈얼리티의 작동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농촌사회에서 산업화로 진행되는 당대 사회가 지닌 근대성의 숨겨진 영역에 대한 탐색이 가능해진다.

2. 남근(phallus)적 도시와 여성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

『영자의 진성시대』나 『미스양의 모험』에서 작가 조선작은 1970년대 농촌 출신 여성들이 도시적 삶의 양식을 발견해나가는 여러 가지 경험 유형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자, 은자, 경혜, 명희, 숙희, 미자 등의 등장인물들은 경제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실행된 근대화의 물결에 따라 무작정 상경한 당대 농촌 출신 여성들의 군상이요, 그들의 전략과정은 도시적 삶을 체험해가는 당대 여성들의 도시 경험의 초상에 해당한다. 그들은 가난한 살림에 입하

5) 문재원,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매춘과 탈매춘』(김정자 외, 『한국현대문학의 성과 매춘연구』, 태학사, 1996), 99면.

나 덜어보겠다는 소박한 동기나 고생하는 부모의 여생을 책임지고 동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상경한다. 그러나 도시적 삶의 실상은 자신의 생계조차 해결하지 어려운 저임금 여공이거나 식모로 출발하여 중국에 여공이나 창녀로 전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들의 인생 역전의 고달픈 파노라마는 당대 사회에서 <무작정 상경한 가출 소녀들이 걷는 직통 코스>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들이 모은 돈이 고향으로 돌아가 필요한 비용으로 지불될 때 '가룩한 자본'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향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월수 이십만원 보장 등과 같은 '예상 가능한 수입'을 매개로 '의도된 타락'과 공생관계를 맺고, 암울한 '의식의 계약' 속에서 황폐한 시간들이 가해지는 가혹한 창녀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⁶⁾ 따라서 1970년대 '가룩한 자본'의 이중성은 곧 바로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중단 없는 행복을 내다던 산업화의 명암 속에 희생되었던 이 땅의 순박한 여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영자는 오로지 배불리 먹어보겠다는 염원을 품고 서울에 상경하여 식모살이를 시작하지만, 식모를 <제 집 요강단지 정도로 아는> 남자들의 성적 욕망의 배설구 노릇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미스양의 모험』에서 명희 역시 처음 주인집 아들에게 순결을 땀기고 난 후, 병든 주인 아주머니 대신 주인 아저씨의 '밤시중'을 듣다 임신하여 고생을 치렀고, 세탁소 직공이나 중국집 배달원 등 못 남성들의 성적 욕망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창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영자나 명희 등이 식모가 아닌 버스 차장이나 여공으로 취직한다 하여도 열악한 노동조건과 남성들의 성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미스양의 모험』에서 한 때 버스차장이었던 미스 남은 밤마다 남자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발가벗기고 몸수색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몸을 파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유흥업소에 자발적으로 뛰어들다. 영자는 만원 버스에 매달려 가다가 마침 달려오던 삼륜차에 치어 외팔이가 되는 비운을 경험하게 된다. 미아리 양말 공장에 다니는 여공인 숙희 역시 몸을 직접 팔고 있지는 않

6) 박종성, 앞의 책, 114면.

다 하더라도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최소한의 생계비마저 보장이 고달픈 생활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직업 소개소를 찾아가 서비스 직종의 직업을 구하려고 시도해보지만, 미모와 거리가 먼 숙희는 번번이 거절당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은자와 같이 대도시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농촌 출신 여성들은 향락문화의 강한 흡인력에 쉽게 노출되게 마련이다. <성공하기 전에 절대로 서울을 떠나지 않겠다>거나 동생들에게 <성공하여 서울로 데려다 대학 공부시켜 주겠다>던 호언장담이 단지 허풍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패장병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에서 부초처럼 살아간다. 이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여성의 육체와 성을 파는 성의 시장이다. 은자 역시 자신의 육체를 담보로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 빠져 전략의 길을 걷게 되는 데, 그것은 신문 광고란을 가득 메운 <옷 줌, 선불 줌, 월수 십오만원 보장>이라는 선전문구의 마력에 홀린 결과이다. 신문광고나 직업소개소가 소개하는 알쏭달쏭한 이름의 업소들이 꾸며내고 있는 거창한 선전문구는 여성을 성 시장으로 몰아넣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한다.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이런 광고는 매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갈 데 없는 농촌 여성들의 값싼 몸을 자본으로 삼아 돈을 벌고자 하는 향락산업 종사자들의 불순한 의도에 의해 왜곡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순한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농촌 출신 여성들은 화려한 광고문에 넘어가 성의 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성 시장에 대한 이들의 정보란 <텀도 엄청난 액수를 받거나와 그 남자들의 눈에 들기만 하면 지위가 높은 남자의 비서가 되거나 재벌 2세와 로맨스가 가능하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공상에 불과할 뿐이다.

한 집 건너가 여관이요 두 집 건너가 술집이요 세 집 건너는 음식점이다. 도무지 이 도시 전체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남녀가 아무렇게나 궁합을 맞추기 위해서 전설되었다는 느낌이다.⁷⁾ (이하 인용면만 밝힐 것임)

7) 조선작, 『미스양의 모험』, 고려원, 1989, 200면.

길병수는 여관 앞을 지날 때마다 마치 몸살난 강아지처럼 보채었다. <한양옥>을 찾은 술꾼들도 그랬었고, 문대선도 은자를 여관방에 밀어 넣었다. 남자들은 하나같이 여자를 여관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야. 마치 그곳에서 꿈이나 낭만이나 행복의 광맥(鑛脈)이라도 캐내려는 사람들처럼. (『미스양의 모험』, 174면)

대폿집의 작부, 다방의 레지, 음식점의 서빙, 관광호텔의 서비스걸, 비어홀의 호스테스 등 도시의 밑바닥 인생을 두루 거친 다음에야 은자는 도시의 삶이 여성의 성과 육체를 노리는 환락의 요지경임을 깨닫게 된다. 선전문구의 합점과 쾌락주의적 향락문화가 만연된 도시의 어두운 면을 경험하고 난 은자에게 도시는 더 이상 희망의 지평이 될 수 없다. 은자의 눈에 비친 도시는 먹고 마시고 사랑 없이 섹스하는 타락한 삶을 압축한다. 도시는 오로지 돈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비도덕적인 소비공간이고, 도시의 남성들은 하나같이 성적 욕망을 배설하기 위해 '여관'이라는 공간으로 여성을 몰아넣으면서도 마치 <꿈이나 낭만이나 행복의 광맥>을 캐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부도덕한 인간유형들이다. 이러한 은자의 시선에는 성적 욕망의 배설에 몰두하는 남근 중심적 도시의 도덕적 황폐함에 대한 염증이 배어있다.

예나 이제나 변함없는 것은 욕망뿐이어서 걸핏하면 다리 사이에서 그 놈이 천막을 치고 일어서는 바람에, 사실 나는 그 놈을 적당히 달래주는 일만으로도 정신없이 바빠 지경이었다. 그쯤 되면 창숙이년이고 나발이고 간애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허겁지겁 꺼야 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서울바다에 사창굴이 한 두 군데가.⁸⁾

이에 비해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나(영식)의 진술에는 자신의 성욕을 언제나 충족할 수 있음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더구나 경제적인 여유가 닿는 한 <언제나 변함없이> 일어나는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고백에서 대도시의 쾌락과 환락의 중심에 남성들의 성적 욕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길거리에서 만난 남자가 아무렇게나 궁합을 맞추기 위해> 건설된 도시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바로 여성의 성과 육체를 탐하는 남성

8) 조전작, 「영자의 전성시대」(『영자의 전성시대』, 민음사, 1974), 47면.

들의 성적 욕망인 것이다. 영식의 시선에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 성을 즐기고 탐하는 능동적인 섹슈얼리티를 추구하는 자의 남성적 거만함이 담겨 있다면, 은자의 시선에는 남성에 대한 혐오, 자신의 욕망과 무관하게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빼앗기는 여성의 성에 대한 우려와 고통이 담겨있다.

이처럼 도시적 삶의 바탕에는 금전경제에 바탕을 둔 물질주의의 파괴성 뿐 아니라 남성들의 배설 욕구에 추동되는 성적 폭력성이 자리잡고 있다. 돈과 성적 쾌락의 야합은 매춘 등의 향락문화를 번성하게 만든다. 향락문화는 여성의 육체와 성을 상품가치에 의해 평가하고 조종하기 때문에 여성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여성의 육체를 물상화하는 현상으로 드러난다. 향락문화가 만연된 도시에서는 남성이 성과 돈과 권력 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남성은 곧 권력을 지닌 남근(phallus)으로 상징화된다. 남근주의적 사고는 남성의 성적 경험에 부여된 거만함과 중요성을 과장하고⁹⁾, 여성의 성과 육체를 남성에게 보이기 위한 육체와 즐거움이나 쾌락을 주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게 만든다.¹⁰⁾ 남근적 대도시의 섹슈얼리티는 '남성은 성을 사고 여성은 성을 파는' 성의 시장논리에 기반하여 작동되고 있다. 성 시장에 통용되는 논리란 여성의 인격 자체를 부정하고 성적 대상으로 보는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성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산물이다.¹¹⁾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결합으로 형성된 성 시장의 확대화는 당대에 은자나 영자 등의 술한 농촌 출신 여성들을 장녀로 전략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작가는 순박한 농촌 출신 여성에서 매춘여성으로 타락한 은자와 같은 여성들을 <조난당한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난민이 양산되었던 원인을 <근대화라 이름하는 돌풍>에 있다고 분석한다. 즉 은자 등은 급격하게 이루어진 근대화의 물결이 물고 은 엄청난 변화의 와중에 <형체도 없이 난파해버린 작은 목선>이다.

9) Anthony Giddens,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1999, 29면.

10) 이영자, 『성의 시장, 매매춘』(오생근·윤혜준 공편, 『성과 사회』, 나남출판사, 1998), 257-258면.

11) 이영자, 앞의 책, 259면.

천마자가 은자의 그 자취방으로부터 옮겨간 새로운 곳은 도심의 빌딩가 그늘 속에 숨겨진 이면의 고장, 사창가였다. 여관이라는 제법 화려한 간판이 붙은 허가 낸 업소들도 섞여 있지만 대부분이 무허가 여인숙, 낡고 추한 고옥들의 집단들이었다. …중략… 이런 험령한 집들이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요망할 수 없는 골목들을 꼬불꼬불 빚어내면서 뽕뽕하게 들어차 있는 곳이 었다. 그러나 그 골목들에서 불과 몇 걸음만 빠져 나오면 수십 층의 빌딩들이 즐비하고 광활한 차도에는 자동차들이 뽕뽕하게 질주하는 대도회의 번영이 활짝 열려져 있었다. 이 대도회의 행정을 통할하는 관청의 석조건물이 바로 손가락으로 가리킬만한 거리에 있고, 뽕 둘러 최신식 철골조 또는 콘크리트 레미콘의 고층건물들이 혹은 상사 사무실로 혹은 관광호텔의 방들로 혹은 아케이드의 점포들로 뽕뽕이 채워져 있으며, 도시 근대화의 상징인 지하철의 입구가 인도에서 아가리를 딱 버리고 있고, 또 우연찮게도 그 곳에는 고궁의 숲도 고성 대문도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일테면 이런 대도회의 심장부 뒷그늘 속에 마치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듯 그런 음습한 고장이 끼어 있는 것이다. 점심시간이면 주변의 고층건물에서 쏟아져 나온 셀러리맨들이 마치 우동 한 그릇으로 허겁지겁 점심을 때우듯 이 음습한 고장에 들러 잠깐만에 용무를 끝내는 사람도 많다는 소문이고 보면, 이곳은 어쩌면 도심의 편리한 배설기관일는지도 모른다. (『미스양의 모험』, 357-358면)

작가는 서술자의 시점을 통하여 은자나 영자 등이 희생된 근본 원인이 파행적 경제정책과 사회 정치적 구조모순에서 야기된 섹슈얼리티의 정치적 지형도에 있음을 지적한다. 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고층건물에는 관광산업의 정책적 육성이라는 이름 하에 일본인을 상대로 하는 기생관광을 위한 방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실정이고, 매춘이 <점심시간에 잠깐씩 들러 용무를 끝내는 셀러리맨>의 삶에 파고들만큼 일상화되어 있다. 그런데 사창가가 도심의 한 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제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지, 일상 생활에서 <도심의 편리한 배설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확대된 현상은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향락산업의 번성과 매춘시장의 확대는 정부가 근대화, 산업화란 이름으로 국가 발전을 강구하던 경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경제구조의 취약성에 기인한 무역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 관광산업정책을 펼치면서 여성을 외화 획득의 원천으로 이용하였던 당시 정부의 정책적 묵인과 조장한 데 기인한 것이다.¹²⁾ 그러므로 비어홀의 여급으로 일하던 경혜가 관광요정으로 옮기자마자 <운수대통 하게도 돈 많은

12) 박종성, 앞의 책, 115-117면.

일본 상인을 만나 인생을 바꾸었다>는 '성공담'이나 일본인의 현지처 노릇을 하며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 비자를 기다리는 양은자의 '출세담' 등은 여성의 성을 외화벌이의 첩경으로 내세우는 당대 정부의 반여성적인 정책에 의해 형성된 여성 상품화의 현주소에 해당한다.

조선작은 창녀로 살아가는 1970년대 여성들의 아픔을 <전성시대>라는 아이러니로 드러낸다.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신체적 결합이 있는 외팔이 창녀 영자가 우연히 영식을 만나 의수를 끼우고 난 후 성업을 이루자 <전세방 값만 모으면 이제 발씻고 살림을 차릴> 것이라며 아무진 꿈을 잔적한다. 그러나 그 꿈은 애당초 비극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다. 성업 중이던 영자의 <전성시대>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자 그 동안 착실하게 모아 호주에게 맡긴 돈을 찾으러 갔다가 그만 화재로 불에 타 죽게 되면서 막을 내린다. 영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영식의 독백을 통하여 화제의 원인이 영자가 대사회적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방화일 개연성을 보여주는 데, 그 개연성으로 인하여 외팔이 창녀 영자의 죽음은 비장미를 지닌다. 작가는 <외팔이 창녀>의 비장미 넘치는 죽음을 통하여 영자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산업화의 명암이 드리운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맞물려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작은 수많은 영자나 은자와 같은 여자들이 속출하게 된 원인이 남근적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도시적 삶의 방식과, 발전 논리를 앞세워 이를 방치하였던 국가 정책에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의 이런 현실인식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물량 확대 일변도의 변동 사회와 그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상실의 드라마를 포착하는 데 안간힘을 다했다>¹³⁾는 작가의 변론에서도 확인된다. 그러기에 조선작의 작품을 '단순한 창녀문학으로 비난할 수 없다'¹⁴⁾는 지적은 설득력을 지닌다.

13) 조선작, 「작가의 말」, 『미스양의 모험』, 고려원, 1989

14) 김치수, 「산업사회와 소설의 변화」(권영민 편, 『한국의 문학비평 1945-1985』, 민음사, 1985), 402-406면.

3. 여성의 성과 육체에 대한 감상적 탐닉

최인호와 조해일은 1970년대 사회 현실에서 여성의 성과 육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 비사실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들은 1970년대 사회의 섹슈얼리티의 정치적 지형도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외면하고 있다. 그 대신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침잠하여 여성의 육체를 미화하고, 여성과의 자유로운 성 관계를 낭만적 사랑¹⁵⁾이라 이름하여 이에 대한 탐닉을 즐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마치 한 발은 현실에 디디고 있으면서 다른 한 발은 일상적 현실에서 적용되는 합의된 리얼리티(consensus reality)를 훌쩍 뛰어넘어 환상의 세계로 달려가는 자세를 취한다. 그러나 환상을 추구하더라도 현실세계에 물리적 변형을 가하여 현실의 질서를 전복하거나 또는 비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감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 세계를 미화함으로써 부조리한 현실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상상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동화와 유사성을 지닌다.¹⁶⁾

누구나의 가슴 속에 한번쯤 깃들었다 스러지는, 누구나의 호주머니에 한번쯤은 소유했다 버려지는 그런 여인. ...중략... 그러나 평범하기 때문에 누구나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여인의 얘기를 쓸 것이다. 두 개의 원칙. 하나는 소설을 읽는 재미를 하루하루의 신문을 통해서 철저히 느껴자도록 할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이 새롭고 독특해야 할 것이며 스토리의 전개를 통해서 연쇄소설의 호흡을 조절할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생명력에 의해서 독자들을 사로잡을 것. 나머지 하나는 주인공의 이름이 기억되어 마치 자신의 첫사랑이나 친근하게 느껴져 이름을 부를 수 있을만큼 자연스럽게 기억되어 질 것을 염두에 둘 것. 이 두 개의 원칙이 『별들의 고향』을 쓰는 내 작품 의도였다.¹⁷⁾(이하 인용면만 밝힐 것임)

1970년대 '호스텍스문학'의 신호탄에 해당하는 『별들의 고향』의 작가 최인

15) 여기서 사용한 '낭만적 사랑'이란 여성의 욕망과 성적 쾌락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 중심적인 사랑을 미화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자기 정체성과 친밀성의 구조 변동에서 여성의 성적 쾌락을 인정하는 앤소니 기든스의 '낭만적 사랑'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16) Kathryn Hume, 『환상과 미메시스』(한창영 역), 푸른 나무, 2000. 33-66면.

조대현, 「동화 창작론」, (강정규 외, 『아동문학 창작론』, 학연사, 1999), 157-159면.

17) 최인호, 『별들의 고향』상, 샘터, 1994. 15면.

호는 <소설 읽는 재미>를 새로운 여성인물의 성격창조와 새롭고 독특한 언어, 독자를 사로잡는 감동에 두고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곧 소설 세계가 현실을 모방하는 사실성과 현실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환상성을 적절하게 교합시켜 주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새로운 여성인물이란 '누구나 한번쯤 소유했다 버려지는 그런 여인'으로서 다분히 남성 중심인 시각에서 입상화된다. 남성의 시선 속에서 형성된 여성상은 남성들이 원하는 바대로 유형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대상에 투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평범하기 때문에 누구나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쓰겠다는 의도를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여성의 삶에 밀착하여 그리겠다는 의지로 심분 받아들이더라도, 그 생명력의 원천을 '남성 기억에 친근하여 남성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조건'에 두고 있으므로 남성들의 시선에 대상화된 여성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주인공의 생명력에 의해서 독자를 사로잡을 것>이라는 전략은 바로 당대 많은 남성 독자들의 비애와 기대에 부응하는 여성상을 만들어 함께 공유하는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어 갖는 대리만족이나 대리소유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상적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경아는 1970년대 남성 독자들의 소유욕에 걸맞는 외모와 성격을 지닌다. 키 155cm, 몸무게 44kg, 가슴둘레 78cm 가량의 작으면서도 <알벤 계>처럼 통통한 몸을 소유한 그녀는 언제나 <안에서부터 팽팽히 솟구치는 긴장감으로 온몸이 비늘 돋힌 생선처럼 생동>하고 <봄 상에 오른 야채 샐러드처럼 싱싱>하다. 게다가 낙천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밝고 명랑한 웃음을 잃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남성들의 시선에 타자화된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인은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에로틱한 여성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녀는 호주머니에 가볍게 소유했다 버려도 전혀 윤리적인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는 <웁다 버린 껌>의 이미지와 중첩된다. 껌이 부담 없이 살 수 있고 단물이 빠지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도시의 대표적인 소비재인 것처럼, <그녀의 껌꼭지는 처음에 입에 넣으면 수축되고 딱딱하지만 서너 번의 저작으로 말랑말랑하게 풀어지는 껌>에 등치되는 그녀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경아라는 인물이 은자나 영자와 마찬가지로 성을

매개로 많은 남성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호스텔스나 창녀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성으로 미화될 수 있는 이유는, <말랑말랑하게 풀어지는> 속성 즉 여러 남자에게 성과 육체를 주었다 하더라도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있다.

이화는 모성과 처녀성을 동시에 지닌 여자이다. ...중략... 이화는 모성(한 없는 따스함과 연민)을 지녔지만 어머니는 아니며 처녀성(여러 남자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면서도 마음의 순결을 잃지 않는 순결성)을 지녔으나 생리적인 의미의 처녀는 아니다. 그녀는 어떤 여자이다. 이 황량하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모성)과 순결(처녀성)을 모두 잃지 않는 어떤 여자이다. 모든 추위하는 남자들의 마음을 자신의 따스한 체온으로 감싸주는 그러면서도 마음의 순결을 잃지 않는 어떤 여자이다. 추위와 황량함에 몸을 떠는 그리고 방황하는 모든 남자들의 따뜻한 마음의 길동무이다.¹⁸⁾

조해일은 이러한 성실한 태도를 <여러 남자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마음의 순결성>을 지닌 '처녀성'으로 명명한다. 조해일에 따르면 경아가 이른바 '처녀성'을 지닌 '성처녀'라면, 『겨울 여자』의 이화는 '처녀성'과 <한없는 따스함과 연민>을 지닌 모성을 겸비한 '성처녀'에 해당한다. <예쁘고 착한> 경아나 <황량하고 추운 겨울에 추위와 황량함에 방황하는 모든 남자들의 따뜻한 마음의 길동무>인 이화는 성의 상품화가 난무하는 타락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여성들의 고달픔이 탈각된 채 남성들에 의해 미화된 여성상이다. 이들은 픽진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동화의 여주인공처럼 맑고 투명하여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지닌다. 그러기에 경아와 이화라는 여성인물은 1970년대 남성들의 집단적인 환상이 만들어낸 아니무스이자 <도시의 그림자>와도 같은 허상이라 할 수 있다.

이화의 성이 결혼과 연결되지 않고 경아의 경우처럼 결혼을 했다 하여도 다시 많은 남자들과 성 관계를 갖는 자유분방함 때문에, 마치 여성의 성적 욕망과 쾌락을 인정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여성을 결혼이란 제도 속에 가두지 않으면 정숙한 여성의 순결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고, 또 정조와 무관하게 순전한 성적 쾌락을 위하여 남성들과 자유롭게 만나는 행동은 여성에게

18) 조해일, 『겨울 여자』하, 문학과 지성사, 1976. 703면.

가해지는 성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아나 이화의 서사에서 성적 쾌락이란 남성들의 섹슈얼리티에 초점을 둔 것이지, 여성(젠더)으로서 성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나 여성 자신의 성적 욕망 등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여성의 성적 자유란 남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식탁보와 이름은 최초의 것에서부터 아껴야 하듯, 한번 얼룩진 식탁보라면 우리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쏟지 않아도 좋을 수프를 일부러 엇질러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더구나 그녀는 첫사랑의 남자에게 소중한 정조를 주어버렸다. 정조를 주어버린다는 것은 몇 방울의 출혈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일종의 계약이었던 것이다. 그 계약이 무참하게 어긋나버렸을 때, 그리하여 그 지리한 겨울을 동면하듯 지냈을 때 경아의 마음엔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와 자기 혐오로 어두운 장막이 내려져 있었다. (『별들의 고향』상, 187면)

너는 더럽고 타락한 여자다. 오우, 하느님, 경아는 고개를 흔들었다. 넌 참 뻔뻔하고 뻔뻔해. 참 천연덕스럽군. 너는 남자의 몸에 대해 이미 익숙해진 여자야. 그런데도 너는 태연스럽군. 마치 즐겁다는 듯이 목욕을 들 끼었고 있어. 이제 목욕을 끝내면 향수까지 뿌리겠지. 그리고 넌 그이의 침대로 파고든다. 그녀는 너의 몸을 만지고 너의 잠든 피를 순수의 피를 불러내겠지. 하지만 너는 처녀가 아니다. 넌 이미 깊이 빠져버렸어. (『별들의 고향』상, 259면)

위의 인용문은 첫사랑이었던 강영석으로부터 버림받고 방황하던 중, 이만준의 청혼을 받고 '자신과 같이 부도덕한 사람은 상처를 입은 남자의 아내로 적합하다'며 자포자기하는 경아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서술자는 마치 실연에 빠진 여성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식의 태도로 말하고 있지만, 남자에게 정조를 준 여성을 이미 '더럽혀진 식탁보'에 비유한다. 순결을 잃은 여자는 한번 '더럽혀진 식탁보'에 일부러 수프를 엇질러 더욱더 더럽게 만드는 것과 같은 반발심과 자포자기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저주한다는 것이다. 서술자에 따르면, '더럽혀진 식탁보'와 같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은 많은 남성들과 성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지만, 경아는 오히려 자폐적으로 방황하거나 버려진 여자의 쓸쓸한 모습을 보일 뿐이다. 이런 경아에게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만준과 결혼하여 첫날밤을 보내기 직전 경아의 심정을

경아의 시점으로 그린 진술이다. 경아는 자신이 이미 더럽혀진 여자라는 점에 대해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갖지만, 그녀를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정작 경아의 내면에 자리한 양심의 소리인 것처럼 들리는 작가의 목소리이다. 처녀가 아니면서도 처녀인 척하는 경아를 채찍질하는 작가의 목소리는 ‘더럽고 타락한’ 여자의 위악적인 태도에 대해 소리 높여 비난한다. 두 인용문에 스며있는 작가의 목소리에서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인정하거나, 여성의 성적 자유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경아를 바라보는 김문오의 시선에는 여성의 몸을 물상화하고 훑쳐보는 관음증적 시각이 담겨있다. <표피를 벗긴 과일처럼 공기에 착색된 흔적>으로 인하여 더욱 <풍요로운 점액질의 육체>와 <잘 빛어진 자기의 표면>처럼 윤택한 피부를 감탄스러운 눈으로 응시한다. 이처럼 여성을 물상화하는 시각에는 여성과의 진정한 유대감의 공유나, 자유와 자아실현의 결합이나, 즐거움과 고통을 수반한 친밀성을 교감하려는 노력이 제거되어 있다. 남성에 의해 규정된 여성은 여성 자신의 의지나 욕망과 무관하게 행동 주체인 남성의 의지와 반응에 따라가는 움직이는 수동적인 객체로 머물게 만든다. 경아가 많은 남자와 만나는 동안 항상 남성들의 욕망과 성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자기에 대한 성찰이나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겨울 여자』에서 이화는 <아무에게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도 또 누구에게나 속해 있는 대지>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여성이 진정으로 ‘대지’가 되려면 다산성과 생산성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과 자유분방한 성적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에게서 임신의 경험이나 출산의 고통은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작가는 남성들의 성적 욕망과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범위 안에서 이화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찬미할 뿐, 이화 자신의 성적 욕망은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화가 남성들보다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능동성을 지니거나 여성에게 정조를 강요하는 가부장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성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남성들에게 끝없이 베푸는 헌신으로서의 성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화의 성숙이란, 어리거나 미성숙한 주인공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해 지식의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고 마침내 성숙의 관문에 이르러 하나의 주체로 자립하는 성장소설¹⁹⁾과 달리, 끊임없이 남성들의 성욕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비워야 하는 비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다. 이화에게 성숙은 어머니의 품과 같이 넉넉한 모성으로 가지고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해소해주는 데 국한될 뿐이지, 주체적인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나 자기자신의 성적 욕망의 추구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경아와 이화를 둘러싼 남성들은 <황량한 겨울>로 비유되는 1970년대 현실 사회에서 정치적 억압과 사회제도에서 소외된 자들이고, 도시적 삶의 방식에서 피로해진 심신을 지닌 군상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환부를 감싸안고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해주는 모성과 처녀성을 겸비한 '성처녀'를 갈구하는 데 있다. 모성과 처녀성을 지닌 '성처녀'와 '대지'의 이미지는 근대화의 비정한 도시와 반대되는 푸근한 고향과 상통한다. 이런 맥락에서 경아와 이화는 1970년대 남성들의 애인이자 구원의 여인상이고, 『별들의 고향』과 『겨울 여자』는 그들의 백일몽적 안식처에 해당한다. 백일몽적 소설의 비현실성은 좌절된 자기 정체성을 실제 사회 생활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무능력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거부의 문학이자 도피의 문학이지만, 현실의 억압과 압박에서 일탈하여 해방과 저항의 즐거움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문학이라 할 수 있다.²⁰⁾ 작가들은 1970년대 독재 정치의 억압감, 산업화 정책의 비인간성, 아로 야기되는 각종 사회 부조리가 난무하는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피곤한 남성들의 심신을 달래주기 위해 현실로부터의 일탈을 꿈꾸는 도피문학을 시도한 것이다. 당대 대중 독자들의 열광적인 호응 또한, 1970년대의 공허하고 암울한 시대적인 정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유와 해방을 갈구하였던 욕망의 문학적 투사이고, 권위와 억압으로 군림하는 정치적 권위주의에 억눌린 억압 심리로부터의 환상적 일탈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통해 일탈을 꿈꾸는 도피문학은 현실에 눈감아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기에 이 소설들에서 자유와 해방에 대한 염원이 쉽게 낭만적인 몰입으로 변질되고, 암울한 현실에 대한 반발심리는 감상주

19)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468-478면.

20) Anthony Giddens, 앞의 책, 90면.

의로 전환된다. 소설 내에서 인물과 서술자들은 모두 성 시장의 확대화가 이루어지는 당대 사회현실에서 실연과 낙태, 결혼과 이혼, 호스텔스의 신고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여성의 고달픈 죽음마저도 <밤이 되면 서울 거리에 밝혀지는 형광등의 불빛과 내은의 번뜩임, 땅콩 장수의 가스등처럼 한 때 피었다 스러지는 서울의 밤, 조그만 요정인지도 모르지, 그래 그녀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인 것이야>와 같이 화려한 수식어를 동반하여 감상적으로 그린다. 심지어 몸과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진 경아가 눈오는 날 밤 만취한 몸을 이끌고 황량한 도시를 걸으며 수면제를 삼키고 서서히 죽어가는 장면에서는 퇴폐미마저 흐른다. 추운 겨울날 동사한 시체조차 '고통이 없는 듯한 표정이 살아있는 얼굴처럼 예쁘다'고 묘사하는 감상적 태도는 앞에서 살펴본 비장미를 뿜어내는 영자의 죽음에 대한 묘사와 판이하게 다르다.

이렇듯 조해일과 최인호는 1970년대의 섹슈얼리티의 지형도에 대해 감상주의와 일탈적 도피에 기대어 유토피아적인 백일몽의 세계로 빠져든다. 1970년대 남성들의 백일몽이란 암울한 현실적 압박감에 벗어나 '예쁘고 착한 여자' 그러면서도 자신의 환부를 감싸안을 수 있는 여성에게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공상의 세계이다. 이러 의미에서 이 소설들은 당대 남성들의 성적 욕망과 꿈과 환상이 투사된 성인동화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당대 대부분의 비평가들처럼 이 소설들을 '사팔뜨기의 시선으로 음습하고 야비한 인물과 사건을 의미의 선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간을 털어놓은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²¹⁾이라는 식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비난은 비판적 리얼리즘의 태도만을 인정하고 다른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당대 문단의 도덕적 근엄주의를 보여준다. '사팔뜨기의 시선'이란 개인의 성적 욕망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놓는 담론화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소설들은 도덕적 근엄주의가 아닌 방식을 취함으로써 당대 사회의 성담론의 폭을 넓혀 놓았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21) 조남현의 「70년대 작가의 허상과 실상」(『여성동아』, 1978. 10.)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4. 맺음말

한 개인에게 성은 본능적이고 지극히 사사로운 것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와 역사적인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감안하면, 성 역시 본능이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성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사회 속에서 개인이 계급과 권력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개인의 성이 작동되는 지점에는 반드시 계급과 권력이 개입되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성은 여성과 남성의 성별 차이 즉 젠더에 따라 작동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권력의 주체이고 여성은 남성들의 권력에 지배를 받는 타자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농촌 사회에서 근대화 사회로 급격하게 이행하는 1970년대에 이른바 '호스테스문학' 또는 '창녀문학'을 중심으로 여성의 성과 육체에 가해지는 섹슈얼리티의 작동방식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사회에서 유난히 호스테스나 창녀의 성을 둘러싼 문제가 부각되었던 것은 도시화 현상의 하나로 농촌 출신 여성이 도시에 입성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성과 육체를 담보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독재 정권에 따른 압박감이나 민심이반을 만회하기 위한 유희정책과 외화벌이의 명목으로 기생관광정책을 펼쳤던 국가 권력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나 『미스양의 모험』에는 1970년대 여성들의 삶의 유형을 통하여 섹슈얼리티가 남성과 여성에게 위계적인 구조로 적용되는 근원에 국가 권력과 남성중심적인 권력이 개입되어 있음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시에 입성한 농촌출신 여성이 식모, 버스차장, 여공을 거쳐 호스테스, 창녀 등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마치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듯 세세하게 보여줌으로써, 도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바로 여성의 육체와 성을 노리는 남성 중심의 향락문화와 성 시장의 논리임을 지적하고 있다. 1970년대 대거 등장한 창녀와 호스테스는 곧 남근(phallus)적 도시에 의해 파멸하고 몰락한 당대 여성들의 초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이나 조해일의 『겨울 여자』는 여성의 삶에 가해지는 도시의 폭력성은 외면하고, 여성의 성과 육체에 탐닉하는 감상주

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명랑한 처녀에서 고달픈 호스텔스로 전락하는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마저도 감상적인 태도와 연민에 찬 눈으로 바라볼 뿐이다. 그리고 남성들의 취향에 맞는 '예쁘고 착한 여성상'을 만들어 여성의 육체를 찬미하고, 자유로운 성을 '성치녀'로 미화한다. 남성의 눈으로 여성의 성과 육체를 바라보는 데 몰두해 있을 뿐이 여성의 삶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백일몽적 일탈과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꿈꾸고 있다.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나 『미스양의 모험』은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이나 조해일의 『겨울 여자』과는 다른 성담론화 방식을 보여준다. 조선작이 당대 섹슈얼리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면, 최인호와 조해일은 동화적 상상력에 기반한 감상적 태도를 취한다. 이 두 가지 성담론화 방식은 이른바 1970년대 사회에서 이른바 '호스텔스문학'이나 '창녀문학' 또는 '상업주의적 대중문학'이라 비난받았던 작품을 통해서 밝혀진 것일 뿐이다. 1970년대 사회의 섹슈얼리티 양상과 성담론의 전체 윤곽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작품 들 외에도 도시적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에 있는 단편들과 김주영의 『목마 위의 여자』 그리고 송영의 『땅콩 껍질 속의 연가』는 물론, 건장한 어촌의 한 남자가 도시의 부도덕한 쾌락주의에 희생되어 거세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황석영의 『장사의 꿈』, 독버섯처럼 번져있는 사창가의 연결고리에 희생당하는 남성과 여성들의 전락과정을 그린 『어둠의 자식들』, 돈과 성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적 삶의 방식을 그린 김원우의 『가슴 없는 세상』 등 좀더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그린 다양한 작품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Abstract>

The Bright and Dark Side of Industrialization in the Narrative of Sexual Desire

- Two aspects of female sexuality in Prostitute Literature of 1970's-

Lee, Jeong-ok

There are so called 'the Prostitute Literature' or the 'Commercial Popular Literature' in 1970's. So far these novels have been criticized on the ground that they only sought after the commercial success through sensational subject matters. However, the reality in novel reflects the author's consciousness toward the society where the individual sexual desire is operated under the social mechanism of sexuality as well as the contemporary social life style. Under this premise, I will investigate the authors' narrative strategies and discursive mode of sexuality, which depict the true picture of sexuality in 1970's in a series of these novels.

The problem of bar girls called hostesses or prostitutes which exceptionally emerged in the society of 1970's can be explained as the part of urbanization including the women from the country areas who moved into cities. But actually, this social problem resulted from the violence of *dictatorial government and the state power* which intend to soothe popular unrest as an appeasement policy and promote the prostitute tourist trade for making dollars.

『Yŏngja ūi chŏnsŏng sidae』, 『Misyang ūi mohŏm』 by Cho Sŏn-jak criticize the state power and male dominant power which get involved with sexuality that hierarchically applies to male and female. Meanwhile, 『Pyŏldŭl ūi kohyang』 by Ch'oe In-ho' and 『Kyŏ'ul yŏja』 by Cho Hae-il take sexual indulgence with sentimental attitude, looking over the violence of city

which regulates women's life. They are trying to escape from real life and to pursue a daydreaming deviation to satisfy sexual desires of men.

These two kinds of discourse mode of sexuality are illustrated through the analysis of works appreciated as the 'Prostitute Literature' or 'the Commercial Popular Literature' in 1970's. To outline the whole aspects of sexuality and discourse mode in 1970's, another works showing the variety of urban life style should be included.